

'수산업 생산단계 기계화율 실태조사' 국가승인통계 첫 발표

- 수산업 기자재 산업 육성과 기계화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수산업 생산 현장의 기계 활용 수준과 기자재 보유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수산업 생산단계 기계화율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기간) 2025. 10. 13.~2025. 11. 20. / (대상) 전국 어선어업 및 양식업 경영체 1,500개

이번 조사는 수산업 생산단계의 기자재 활용 수준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실시된 수산 분야 최초의 국가승인통계 조사로서, 향후 수산업 기자재 산업 육성과 기계화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어선어업인의 경우 77.8%가 기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는 등 양식업 분야(59.2%)보다 기계화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양망(어구 회수) 과정에서 86.9%가 기계를 사용한다고 응답하였고, 보조 기자재 및 탐색장비의 기계 사용률(67.6%)도 절반이 넘었다.

수산업 생산단계 기계화율 실태조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통계포털 누리집(www.kosis.kr)과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스마트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2026. 3. 31., 시행 2027. 4. 1.)으로 수산 기자재 산업 육성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수산기자재 시험·인증센터 구축, 수산 장비 임대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산업 현장과 어업인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양영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이번 조사는 수산업 생산단계의 기계화 수준을 체계적으로 파악한 첫 국가승인통계 조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 어업 현장의 노동 부담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수산기자재 산업 육성과 스마트 어업 기반 구축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 | | | |
|-------|----------------|-----|-----|--------------------|
| 담당 부서 | 수산정책관 소득복지과 | 책임자 | 과 장 | 이진우 (051-773-5460) |
| | | 담당자 | 서기관 | 김기훈 (051-773-5461) |

□ 조사 목적

- 수산업 생산단계에서 활용되는 기자재 보유 현황과 기계 활용 수준을 파악하여 수산업 기계화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국가승인통계 제 146010호

□ 표본 설계와 조사 방법

| 구 분 | | 내 용 |
|----------|---|---|
| 표본설계 | 모집단 | 전국 어선어업 및 양식업 경영체 |
| | 표본추출 들 | 2020년 농림어업총조사의 해당 어가 자료 * 다단계화집락추출(어업유형 → 지역 → 어가) |
| | 표본규모 | 전국 1,500개 어업경영체(어선어업 1,200, 양식업 300) |
| 조사방법 |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대면 면접 조사 조사 대상 : 표본 어선어업 및 양식업 경영체의 대표자 조사 기간 : 2025년 10월 13일 ~ 2025년 11월 20일 | |
| 산출방법 | 서로 다른 가중값을 갖는 복합조사에서의 추정식을 적용하여 전국 추정 | |
| 조사 기준 시점 | 2024년 12월 31일(조사 대상 기간 : 2024. 1. 1.~ 12. 31.) | |